

철학이 숨쉬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카페 필로소피아' 창립 20주년 기념 '철학 콘서트'

1996년 성진기 교수 시작... 시민과 함께 인문학 공부
'철학이 무엇을 하라' 주제... 25일 5·18기록관
최진석·이명현·백중현·임흥빈·노양진 강연
철학 관련 음악 공연·미술 전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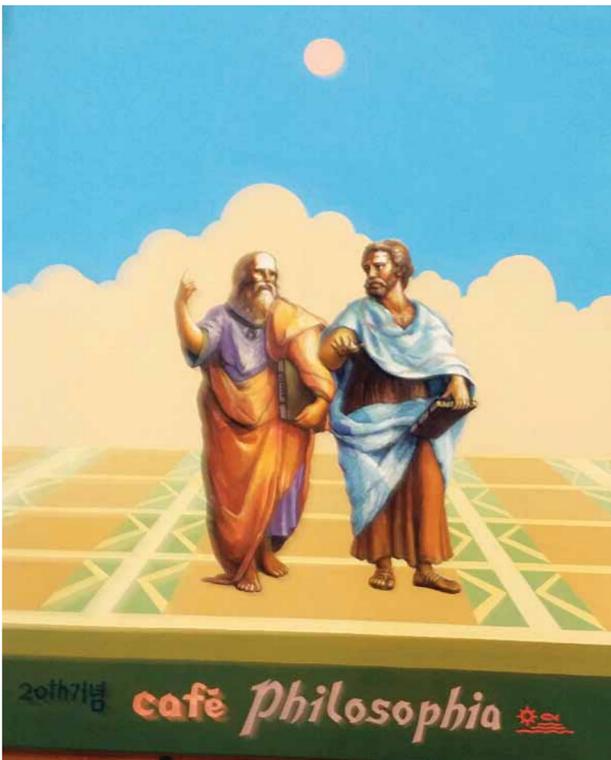
이명현



백중현



최진석



김경우 작 '카페 필로소피아'

지난 1996년 소박한 인문학 동지가 문을 열었다. 지금처럼 인문학 열풍이 불기 한참 전의 일이다. 당시 전남대 철학과 교수였던 성진기 선생이 광주시 동구 학동에 연 '카페 필로소피아(Cafe PhiloSophia)'다. 카페라는 이름을 단 건 편안함과 안락함, 그 속에서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싶어하였다. '카페 필로소피아'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학동 시절을 거쳐 고전문학 감상

실 베토벤, 전남대 후문 앞 공부방, 누리재단 사무실, 그리고 지난해 이전한 전남여고 정문 앞까지 장소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게 있다. 함께 모여 인문학을 공부하며 대화를 나누고, 인간다운 삶에 대해 고민해 온 점이다. 성교수는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철학책을 읽고, 퇴임 후엔 국내 유명 철학자들을 초청해 '인문학 Sail'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니체쇼'도 열었다. 카페 필로소피아 창립 20주년 기념 철학콘서트를 연다. 25일 낮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옛 가톨릭센터).

학은 인간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다', 백중현 서울대 명예교수의 '윤리학, 자유 의지의 문제', 임흥빈 고려대 교수의 '철학적 계몽이란?', 노양진 전남대 교수의 '대응에서 사상으로: 언어와 철학의 지향', 최진석 서강대 교수의 '철학은 내용이 아니라 행동이다'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림과 음악을 통해 살펴보는 '철학'은 색다른 느낌이다. 지난해 열린 '니체쇼'에서 선보였던 김현욱 작곡가의 창작음악은 다시 시민들을 만난다. 첼로 독주(박효은)로 듣는 '인간적인 너무 인간적인', 첼로와 바이올린 2중주(박효은·윤성근) 곡 '초인'이다. 그밖에 김현욱씨의 피아노 연주도 마련돼 있다.

지역 작가들은 니체, 소크라테스 등 철학자들의 초상화와 함께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와 부엉이를 소재로 한 그림을 전시한다. 진경우, 김평준, 한희원, 김해성, 김혁정 작가가 참여했다. 그밖에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 등 철학과 관련된 그림들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갖는다. 전남여고 정문앞 1층에 자리한 '카페 필로소피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올빼미 그림과 '인문학 동지'라는 글이 쓰인 작은 간판이 걸려 있는 문을 밀고

조선대 한국화과 동문 미술축제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16~22일 갤러리D



김단비 작 '동작진'

조선대학교 한국화과 동문들이 펼치는 미술축제 '제 12회 아시아 영 아트 페스티벌'(이하 아시아프)이 16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아시아프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지난 200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특히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청년 작가들이 보여주는 실험정신 넘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단비, 김여진, 김혜리, 박진솔, 이태희, 장예슬, 최나래 등 신진작가 7명 작품 50여점을 선보인다.

김단비 작가는 작품 '동작진(動奮津)'을 통해 어린 시절 설렘 가득하던 상상 속 풍경을 불러온다. 분홍빛 산아는 옛

기억과 현재 삶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김여진 작가는 일상의 갈등과 고민을 다룬다. 작품 'Personal Relations(대인관계)'은 형이상학적 그물 패턴을 통해 복잡한 인간 관계와 다양한 심리를 담았다.

또 이태희 작가는 탁본을 반복하며 나이테 질감을 살린 '원천-나이테'를, 최나래 작가는 한지를 덧붙여 옛 풍경을 표현한 '안식(安息)'을 출품했다. 그밖에 김혜리 작가는 자화상 '몽실몽실 복숭아', 박진솔 '꽃눈이는 산책중', 장예슬 '사랑하는 ~씨'를 전시한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병사성당



마가렛 사택

고흥 소록도 병사성당·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

문화재청, 659호·660호 문화재 등록

고흥 소록도 '할매수녀'들이 한센인들이 돌보며 거주했던 집이 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14일 소록도 '병사성당'과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을 각각 등록문화재 제659호와 제660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병사성당'은 소록도 내 한센인(나환자) 생활 공간인 병사(病舍) 지역에 1961년 건립된 벽돌조 성당이다. 한센인들이 직접 경사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만들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 벽돌을 만들

어 지었다. 한센인들의 육체적·정신적 아픔을 치유하는 영적 장소가 되었던 곳으로, 소록도 병사 지역 내 유일한 성당이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사택'은 1938년 건립된 벽돌조 주택으로, 40여년간 소록도 내 한센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던 마리안느와 마가렛이 거주했던 집이다.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인으로서 1962년과 1966년 각각 직접 경사지를 평탄한 지형으로 만들고 바닷가에서 모래를 채취해 벽돌을 만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일요일 휴관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읍 '九景' 구경 오세요!

역사·문화·관광·자연이 어우러진 대표적 명소 각광!

1 내장산 단풍터널

2 옥정호 구절초 지방정원

3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

4 무성서원과 상춘공원

5 백제가요 정읍사문화공원

6 피향정 연꽃

7 정읍천 벚꽃길

8 전설의 쌍화차거리

9 백정기사의 기념관